

호모미그란스 휘보

■ 2016년 상반기 학술대회

- 이주와 젠더 -

- 일시: 2016년 2월 26일 오후 2:00-6: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503호

사회: 양재혁

1. 김지원(명지대) - 미국의 반일본운동과 한인여성의 이주 (1910-1924)
발표자: 김지원(명지대학교)
2. 김현미(연세대) - '국민' 개념의 구성과 '비국민' 여성 이주자의 법적 불안정성
3. 최향란(전남대) - 프랑스 기업의 이주여성노동자들
4. 나혜심(성균관대) - 이주시대와 여성의 깨어나기

《영화로 읽는 이주 다문화: 통합과 배제의 문화상징(가제)》

제노사이드, 인종분리정책, 이민자들과 연관된 도시폭동.... 20세기의 수많은 ‘사건’들은 인종주의 문제를 품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이주를 통한 ‘이방인’들의 공간 점유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또는 식민주의의 결과로 인한 서로 다른 에스닉 집단 간의 종교적, 경제적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타자를 보는 시선이 인간의 정치 행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현상은 계급, 젠더, 민족문제 등과 뒤섞인 인종주의 문제로 형상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소위 ‘다문화’ 사회라고 불리는 사회, 정치, 경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합과 공존을 목표로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는 역설적인 현실이며 엄중한 역사이다. 1943년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에서부터 2005년 파리 방리유의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까지, 16세기 이래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흑인노예부터 21세기 유럽에 거주하면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 이주와 인종주의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일상에서 만난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영화가 이주와 인종주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이야기 구조는 현실에 대한 재현임과 동시에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기호체계이다. 즉 이주와 이민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이 복잡한 사회현상의 표상임과 동시에, 이 현상에 개입하게 되는 상징장치가 된다. 영화가 다루는 소재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는 상징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징체계에 포섭되는지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로 요약되는 현대사회가 이민과 인종주의 문제를 표현하고 말하는 방식을 읽어내 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독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 이주사학회

편집: 신동규(창원대), 염운옥(고려대)

출판사: 에코리브르(Eco livres, 대표: 박재환)

일정(예정)

7월 30일: 원고 수합(각 원고지 80-100매)

8월 1일-30일: 이민인종연구회 원고편집 및 서문작성(편집부)

8월 30일: 출판사에 원고 제출

10월 말, 11월 초: 저자 교정

11월: 출간

수록 예정 원고

1. 문중현, Venus noire(사라 바트만의 삶과 인종주의)
 2. 오영인, Gangs of New York(아일랜드계 이민자의 백인성)
 3. 김정옥, The cheat(1915년 무성영화 고약한 황인종의 전형)
 4. 이찬행, Falling down(LA에서 백인의 소수화)
 5. 문경희, 토끼올타리(호주 원주민 강제동화 정책)
 6. 하영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영국에 이주한 파키스탄 동성애자)
 7. 권은혜, Maria Full of Grace(‘마약노새’ 여성과 이주의 현실)
 8. 남옥정, <칠판>(소수민족과 국경선의 의미)
 9. 봉인영, <I am Chinese>(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인들의 중국 이민)
 10. 윤영희, <불의 전차>(영국의 유대인)
 11. 박지현, <라운드 업>(프랑스 비시정부의 유대인 검거 사건)
 12. 홍용진, <Kingdom of Heaven>(중세 십자군과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현재의 관점)
 13. 신동규, <영광의 날들>(북아프리카 출신 프랑스 군인)
 14. 박단, <증오>, <클래스>(프랑스 방리유의 이민자)
 15. 이선희,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독일 아랍계 이민자들의 삶)
 16. 조원욱, 홀로코스트 영화들(홀로코스트의 상품화)
- (총 16편)